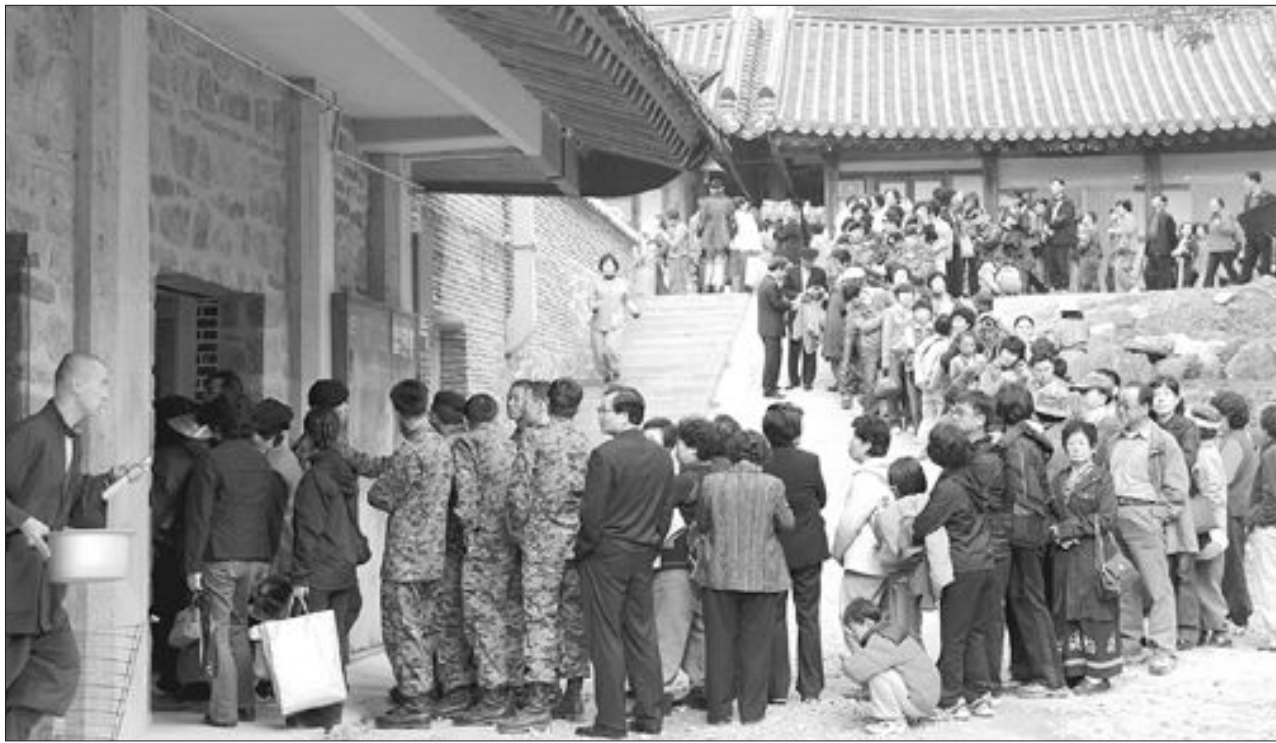


사진기자의 단풍

“단풍 구경도 식후경이제”



붉은빛으로 푸른 산을 감싸안던 단풍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는 곱디고운 곱던 단풍 위로 하얀 눈꽃이 사뿐히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단풍잎이 붉은빛을 한껏 뽐내던 지난 주, 가을이 아름다운 곳 백양사에 단풍의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단풍축제까지 더해지면서 백양사 일대는 인산 인해입니다.

애기 단풍의 고운 자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곳저곳 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이 해가 산 정상에 오를 때쯤 한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단풍철 백양사의 점심 공양시간 풍경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길게 늘어선 점심 공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긴 줄은 경내를 돌고 돌아 장관을 연출합니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바쁜 현대인들이지만 이날 만큼은 기다림의 순간도 즐거운 듯 밝은 표정들입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푸른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의 어울림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를 잠시 벗어놓고 산사의 맑고 그윽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은 다시금 일상 속에서 바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하늘빛도, 바람 내음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가을과의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이제는 한 해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풍경과 소박한 밥 한 그릇으로도 행복한 우리 이웃들의 겨울이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 신부의 선택

보석 가게에 결혼을 앞둔 여자가 찾아왔다. 여자가 신랑의 반지를 고르자 보석 가게 주인이 말했다.

“반지에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새겨드릴까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대답했다. “글쎄요, 우리는 별로 로맨틱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말이죠.”

“그러면 남편분이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도록 반지에 결혼날짜를 새겨 드릴까요?”

“신랑이 생일날 결혼식을 하느라 기념일을 잊어 버릴 일도 없는데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주인이 말했다. “남편 되실 분이 반지를 들여다보면서 기억 해주셨으면 하는 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여자가 무엇인가 생각했다는 듯 말했다. “아!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새겨드릴까요?”

“이렇게 써주세요. ‘도로 껴요!’”

■ 남편의 유혹

저녁을 먹고 난 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느긋한 눈빛을 한 채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밤엔 돌이 위치를 바꿔보는 게 어때?”

그러자 부인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아요!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테니 당신은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세요. 참 다리미질도 잊지 말아요!”

■ 친구의 죽음

한 남자가 친구와 숲 속으로 산책을 하러 갔다. 한참 숲 속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쓰러졌다. 남자는 깜짝 놀라 쓰러진 친구를 살펴보았지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당황한 남자는 전화기를 꺼내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

“저기요, 친구가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전화를 받은 교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급한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구가 확실하게 죽었습니까? 확인 해주실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발의 총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다시 말했다.

“됐어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급한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구가 확실하게 죽었습니까? 확인 해주실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발의 총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다시 말했다.

“됐어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 아르바이트생

한 여자가 어떤 남자로부터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받았다. 여자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세요. 100일간 밤마다 집 앞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당신의 연인이 돼줄게요.”

그 편지를 보낸 밤부터 남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그 여자 집 앞을 찾아왔다. 여자는 매일 밤 자기를 위해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감동했다.

그리고 99일째 되던 날 밤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여자는 심한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남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우산을 들고 뛰어갔다.

“저기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당신 마음을 모두 알았으니 당신과 만나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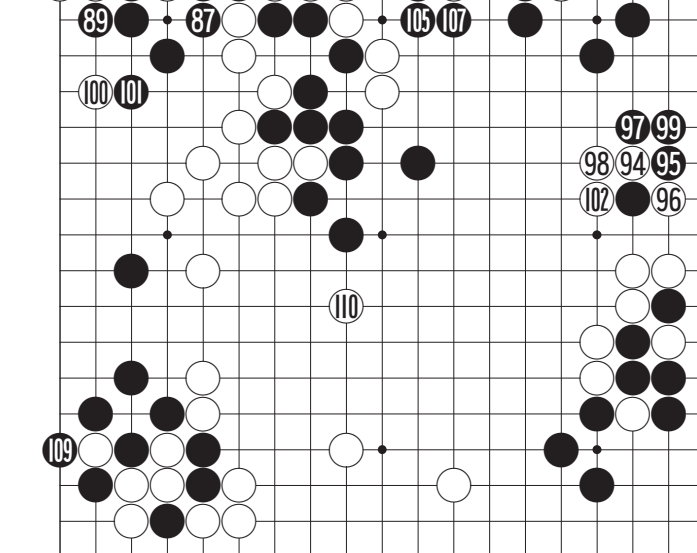
그러자 그 남자 당황한 목소리로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승세를 구가하는 흑

제89회 전국체전 바둑 대회 어린이부 결승 6보(87~110)

白 나태현 (경기도) 黑 현승민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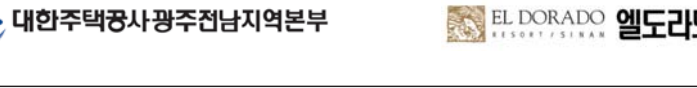
나태현군이 몇 번의 실착을 거듭하는 바람에 형세는 흑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나태현군도 이들의 의식하고 백으로 있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으나 이것이 또 손해수가 되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데로 88로 찢히고 90으로 호구쳐 보았으나 흑 91의 치중 한방에 더이상 버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참고도’의 백 1로 끊자고 하는 것은 흑 2,

4로 그만이다. 위나 수가 없는 것이다. 나태현군은 접전하는 곳마다 손해를 보자 벌겍게 상기된 채 이번에는 아까부터 노리던 백 94로 불어 시비를 걸어간다. 승기를 잡은 현승민군은 흑 95로 아래에서 찢었고 99까지 싸작하게 몰아서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만큼 형세가 좋아진 것이다.

흑 103이 날카로운 맥점으로 현승민군이 결승에 올라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 수였다. 107까지 이곳의 공격 맛을 남긴채 109로 시원하게 때내 한껏 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리빙 센스

스모키 화장 - 블루



■ 생겨줄 있는 눈

1. 블랙 컬러 펜을 아이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다소 길고 도톰하게 그린다. 언더라인은 꼬리 쪽만 그려준다.

2. 진한 블루 색도를 아이라인과 생겨줄 라인을 중심으로 펴 바른다.

3. 연한 블루 색도를 아이클 부분에만 발라준다.

■ 생겨줄 없는 눈

1. 블랙 아이라이너로 위아래의 아이라인을 먼저 깔끔하게 그린다.

2. 아이클 부분에 연한 블루 아이섀도를 펴 바른다. 진한 블루 컬러로 라인을 선명한 느낌이 나도록 발라준다.

3. 언더라인을 따라 진한 블루 컬러 섀도를 덧바른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음 10월 14일乙卯)

36년생 부모 형제와 불평 일이 생긴다. 48년생 조금만 인내하라 시비가 생길다. 60년생 그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72년생 우연한 인연이 좋은 일로 연결이 된다. 84년생 주변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08, 37

37년생 손해가 더하니 꼭 가야할 곳만 가야한다. 49년생 자신의 건강도 살펴봐라. 61년생 말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보라. 73년생 새로운 문서가 있으나 실통치가 않다. 85년생 근친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29

38년생 첫째도 조상이요 둘째도 조심을 해야 할 하루다. 50년생 기대했던 협력자는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2년생 부부간의 불협은 사소한 관심에서 온다. 74년생 재수가 좋지만 잘 풀리지 않는 조심을 하라. 행운의 숫자: 07, 40

39년생 희망이 다가오니 가서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한다. 51년생 육신은 금물이다 버려진 얼으리라. 63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75년생 길한 일이 생길지는 징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09, 30

40년생 소란스런 상황에서 벗어나자만 아직은 아니다. 52년생 길보다는 흥을 조심하라. 64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리라. 76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하니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 행운의 숫자: 21, 25

41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자신이 빠지지 않으면 되리라. 53년생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이 이룰 수 있다. 65년생 노는 곳을 피하라 허송세월이다. 77년생 근거리의 여행을 간다. 행운의 숫자: 05, 26

42년생 이사변동수가 있으니 준비를 하라. 54년생 밖의 일이 잘 되려면 내사를 잘 다스려야 가능하다. 66년생 자신의 불평은 혼자서 감수하라 식구에게 번질라. 78년생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재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03, 45

43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55년생 좋은 일끝에 흥한 일을 만날라 조심이 우선이다. 67년생 안과 귀를 통째로 주의하라 그러면 큰일은 없다. 79년생 좋은 것은 흥을 때 지켜라. 행운의 숫자: 11, 34

44년생 신사가 생기지만 주의도 기울이라. 56년생 물건을 잃었다 찾는 기분이다. 68년생 표리가 부당한 친구를 피해야 하리라. 80년생 과욕은 불평하니 과욕을 버리면 편안한 하루이다. 행운의 숫자: 01, 35

45년생 신문서와 구문서가 교체된다. 57년생 기쁨도 크지만 고생도 크다. 69년생 기대했던 좋은 오히려 실망을 가져온다. 81년생 부모 형제의 충고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06, 28

46년생 피곤한 하루지만 이득은 있다. 58년생 물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반은 성공이다. 70년생 세밀한 설계도와 비상대책은 꼭 세워두라 갑자기 다가온다. 82년생 열병은 한순간이니 너무 속태우지 마라. 행운의 숫자: 14, 38

47년생 좋은 생각이 좋은 인연을 만드니 실심을 꼭꼭 쓰라. 59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루어리라. 71년생 사기에 휘둘리는 것은 자신의 사기성도 한 복을 한다. 83년생 가까운 이웃이 협조자로 등장한다. 행운의 숫자: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family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ach column contains a topic (e.g., 'Give me a ballpark figure', 'この部屋(へや)ごきぶりが本當に多(おお)いね'), a sample dialogue in the target language, and a list of vocabulary words with their meanings in Korean. The columns are: 1. English (Dong-A Foreign Language Institute), 2. Japanese (Kwangju Global Foreign Language Institute), 3. Chinese (Kwangju Chinese Language Institute), 4. Korean (Hangeul). Each column also includes a phone number and website.